



시내 중화요리점에서 일하고
있었던 고 다이테 씨는 폭발
지점에서 약 1.4 km 떨어진
우라카미 제 1병원에 피난해
있을 때 피폭했다. 이것은 그
때 착용하고 있었던
국방복이다. 그 후 니시야마
지구에 자력으로 피난했다.

폭발지점에서의 거리 / 약 1.4km
간 후미카쓰 씨 기증 / 나가사키
원폭자료관 제공